한국구술인물사⑩ / 전 재 성 빠알리성전협회 회장

불교학생회 조직은 민청학련 가담으로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서대문 형무소는 근 · 현대 항일 민주화운동의 상처를 간직한 곳이다.

전재성에게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가담하게 된 배경 구술을 요청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고교 시절을 회상한다. 당시를 회상하며 출가였는지 가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운을 뗀다. 중이 되겠다고 오대산 상원사를 찾은 것이다.

"신체적으로 어떤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탈출해야 되겠다 사회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무작정 하여간 짐을 싸들고 출가하려고 갔어요. 갔다가 며칠 한 이삼일 있다가, 근데 절에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규율에 맞도록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고민이 많은 사람이 그런 계율 같은 거 신경쓰고 일찍 일어나고 시간 맞춰서 뭐하고 이런 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서 입은 화상의 흔적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고(苦)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오대산을 찾은 것이다.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더 힘들다고 느낀 그는 며칠 더 묵고가라는 스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도망가듯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이미 중학교 생물선생님으로부터 불교 교리와 참선을 배웠다. 어려서 화상을 입은 이후 허약한 체질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다. 출가는 고의 해결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불교와 인연이 닿았고, 전재성은 서울대 농대에 입학해 불교학생회를 조직했던 것이다.

불교학생회를 조직한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학생들이 지지했다. 농대불교학생회 회장인 그는 서울대 불교학생회 연합인 '총불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문리대불교학생회, 법불회 등 각 단과대 학생들과 어울리게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 대면할 기회가 생기면서 유신체제를 고민하는 리더들을 만난다. 이 때 민주화인사들을 대거 만나게 된다. 총불회 활동에서 강창일(現 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삼선개헌 이후로 시월유신 이후로 여러 가지 억압적인 독재체제가 구축이 되니까 그러고 뭐 그런 문제들을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 번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전재성은 1973년 겨울 전남 승주군 송광사에서 개최된 수련대회로 기억한다. 그보다 나중에 만난 사람이지만 황인범 선배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전재성은 총불회 활동과 함께 대불련(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화운동 집회에 자주 참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도 긴급조치 4호를 피할 수 없었다.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⑫

깨달으면 보고 만나는 것마다 관음보살이 된다

대체로 참선하는 스님들은 오로지 화두일념(話頭一念)으로 정진을 거듭한다. 그래서 선방으로 하안거와 동안거를 한철씩 나게 되는데, 달리 기도나 그 외 수행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안거시작전이나 참선공부에 앞서 철저한 기도를 하고 시작한 경우가 많이 있다.

경봉 스님은 대오(大悟)하고 3년 뒤인 1930년 2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낙산사 홍련암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 경봉 스님이 홍련암을 찾은 삼칠일(21일) 기도로서 깨달음을 되새기는 보임(保任)의 일환이었다.

홍련암 감원(監院; 암주)은 서응담(徐應潭)이었다. 확철대오한 경봉 스님의 소문은 이미 이곳까지 미치어 경봉 스님은 응담 스님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다. 경봉 스님은 요사의 빈 방을 하나 배정받고 다음날 낙산사 주지 함정묵(咸定默) 스님을 만났다.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낙산사 홍련암을 필자도 20여 년 전 기도를 하기 위해 찾은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공부하는 스님들의 말씀이 아련히 기억이 난다.

원통보전에 낙산사를 소재로 한 숙종의 어제시(御製詩)가 걸려 있다.

양양 낙산사 홍련암

경쾌한 남행길에 낙가봉 오르니
바람에 옅은 구름 개여 달빛이 아름답네
대성(大聖)의 원통(圓通)한 이치를 알고자 하는가
이따금 파랑새가 꽃을 물고 오네
快登南里洛迦峰
風捲纖雲月色濃
欲識圓通大聖理
有時青鳥啣花逢

중국에서 돌아온 의상 대사가 이곳을 참배했을 때 파랑새 한 마리가 나타나 바닷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의상 대사는 동굴 앞에서 기도하던 중 7일 만에 홍련 속의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 이후 동굴은 관음굴로 불리고, 굴 위에 홍련암이 지어졌다.

경봉 스님은 숙종의 시를 보고 시를 한 수 지었다.

물을 건너 구름 밟으며 봉우리에 오르니
연하(煙霞)와 풍월이 한 빛으로 어리었네.
관음보살 친견하기 어렵다하지 말라
큰 꿈 깨고 나면 날마다 만나리.
渡水畓雲到此雲
煙霞風月一光濃
觀音莫道難親見
大夢惺時日日逢

깨닫고 나면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관음보살이라는 경봉의 선시였다. 경봉스님은 바로 홍련암으로 내려와 수선(修禪)과 기도에 들어갔다. 기도시작한지 7일째 경봉 스님은 선정에 들었다가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바다 위를 걸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문득 고개를 들어 보니 하얀 옷을 입은 백의관음보살(白衣觀音菩薩)이었다. 관세음보살은 일출의 광명처럼 붉은 연꽃에 좌정하고 있었다. 꿈결 같았지만 정신은 샘물처럼 맑기만 했다.

그 기쁨은 어떠했을까? 의상대로 올라가 눈바람을 맞으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어린 홍송 한 그루를 관음보살을 친견한 기념으로 식수(植樹)했던 것이다. 紅蓮庵(홍련암)이라고 적힌 글씨는 경봉 스님의 글씨로 얼마전 화재에도 법당과 함께 그대로 남아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㉝ 사천왕지

사천왕사지에 가면 신라밀교 만나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의 낭산(狼山)에는 능지탑, 중생사, 황복사지, 선덕여왕릉, 신문왕릉 등의 유적이 즐비하다. 특히 낭산 자락에 위치한 사천왕사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에 사천왕사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다. 사천왕사는 신라의 유명한 고승인 명랑 스님(明朗; 생몰미상)에 의해 창건됐다. 삼국유사 문무왕 조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당나라는 674년 신라가 그들의 도독부를 공격한다는 핑계로 50만 대병을 일으켰다. 이 사실을 미리 안 김인문은 의상대사를 통해 문무왕에게 알렸다. 신하들이 천거한 명랑 스님에게 당나라를 이길 비책을 묻자, 명랑 스님은 "낭산 남쪽에 신유림(神遊林)이 있는데, 이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세우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당나라를 치려 세웠던 사천왕사
망덕사는 당나라 속이려 지어져

이 말에 따라 절을 지으려던 찰나에 당의 군대가 갑자기 밀려오자, 채색 비단으로 급히 임시 절을 짓고 짚으로는 5방의 신상을 만들어 유가명승 12명과 문두루비법을 쓰니 몰려오던 당나라군의 배가 싸우기도 전에 풍랑이 일어나 모두 가라앉게 됐다. 이 후 5년 만에 사천왕사는 건립됐다.

사천왕사 뒤에는 선덕여왕의 능이 있다. 선덕여왕의 유명한 세 가지 유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죽음에 관한 예언이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이 "내가 죽은 뒤 도리천에 장사를 지내라"라고 기록돼 있다. 신하들은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낭산의 남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사천왕사 건너편에는 망덕사라는 절터가 있다. 당고종이 신라에 술법을 쓰는 자가 있어 당의 군대가 무너진 것을 의심해 예부시랑 악붕귀를 보내 알아보려고 했으나, 신라는 다른 절을 지어놓고 사신을 맞았다. 신라는 황금 1000냥을 뇌물로 주어 무마시켰다. 그 뒤 당나라 사신은 "신라가 천왕사를 세우고 황제의 장수를 기원할 뿐 이었습니다"라고 고했다. 당의 사신의 말에 따라 이 절을 망덕사(望德寺)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런 여러 전설을 담고 있는 사천왕사지는 현재 황량한 폐사지로 남았다. 절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부족해 현재는 그 절터가 반으로 동강나 있다. 일제강점기에 동해 남부선이 절터를 갈라놓았는데 이는 일본인들이 호국정신의 맥을 끊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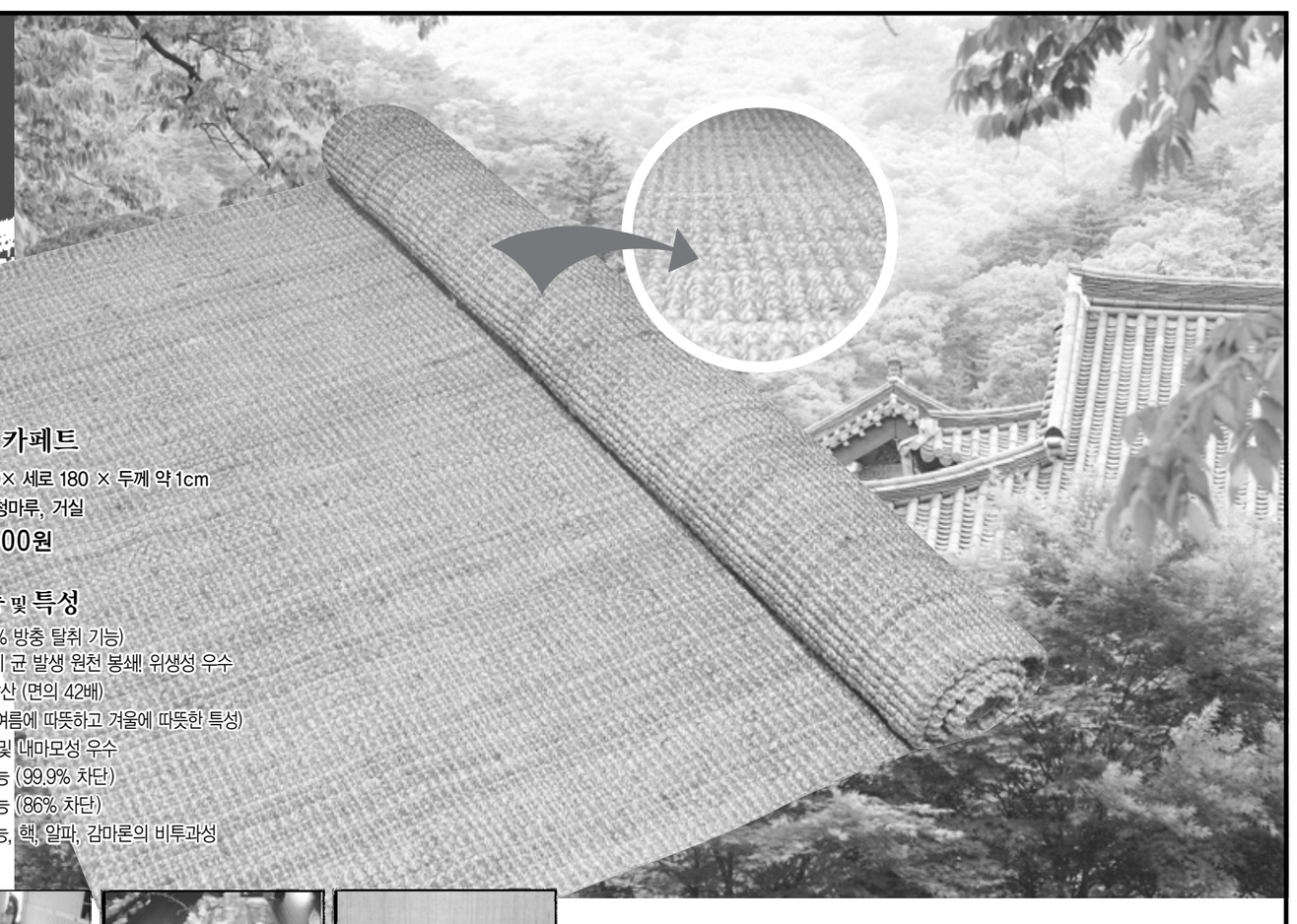
이곳에서는 당초문양의 와당과 사천왕의 모습을 세긴 전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틀로 찍어내어 표면에 갈색의 유약을 입혀 구운 것이다. 현재 완전한 모양은 없지만, 이들 조각을 맞추어 분류하면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팔부중(八部衆)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사천왕을 새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천왕상이 악귀를 밟고 서 있는데 사천왕사지의 사천왕상은 특이하게 악귀를 깔고 앉은 좌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복식은 중국식이며, 인체 및 갑옷의 표현이 아주 사실적으로 조각돼있다. 사천왕사의 목조탑 초층 탑신의 네 면을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고의 조각가였던 양지(良志)스님이 만든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전은 사천왕사의 중요한 출토 유물이다. 사실적인 조각과 역동감이 느껴지는 이 작품은 사천왕사지의 화려한 과거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의 기원을 함께한 밀교신앙은 다양한 신라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